

정운찬 대선 불출마 선언

범여권 대통합 악재 되나

후보 중심 통합론 용도 폐기될 듯 대선전략 수정·통합 논의 원점 회귀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돼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결국 '불출마'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대선 정국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장의 낙마로 그동안 범여권에서 다각도로 추진했던 대통령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범여권은 지난 1월 16일 고건 전 총리의 전격 중도 사퇴에 이어 또 다시 유력 후보가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범여권에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유력 후보가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 전 총장이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 출신인 것은 물론 '호남+충청'의 서부벨트 복원 적임자로 꼽혔다는 점에서 범여권의 충격은 상당하다.

여기에 4·25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이 책임론을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이뤄졌다는 데 대한 아쉬움도 흘러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4·25 재·보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으로 잠시 흔들렸던 한나라당 대세를 다시 확산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대통합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선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운찬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등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신당론'을 내세우며 당 해체까지 거론해 왔던 열린우리당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이 지난 4·25 재보궐선거에서도 몸을 사리는 등 역사 앞에서 결단하려는 용기가 없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그러나 아

직 잠재적 범여권 대선주자군이 폭넓게 형성돼있는 만큼 '후보 중심의 신당 창당'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집단 탈당 이후로 줄곧 정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여온 통합신당모임 역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 전 총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은 통합신당모임의 독자신당 창당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정 전 총장의 불출마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정 전 총장의 낙마는 인물 중심의 통합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줬다"며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총장의 낙마에 따라 범여권에서 여러모로 진행 중인 대통합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 전 총장의 낙마는 범여권에는 악재로, 한나라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표 당새신안李 '유보'-朴 '수용'

한나라 내홍 종대기로

지도부 총사퇴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홍이 강재섭 대표의 사퇴거부 및 새신안 발표 이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강 대표의 새신안을 수용하고 현 지도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은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으나, 불만족스럽다는 기류속에 지도부 총사퇴촉구 쪽으로 방향을 잡을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양측이 당 진로를 놓고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연합뉴스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물러나면 당장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당내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것이고 자칫 당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의 입장표명과 새신안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한선교 대변인을 통해 "강 대표가 책임있는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지만 이 전 서울시장의 "좀 두고 보자"며 공식반응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과 가까운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강 대표가 여러 좋은 계획들을 제시했지만 현 지도부는 이미 그 목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며 당연직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고, 홍준표·전여욱 의원 등도 지도부 사퇴를 재차 촉

구하는 등 지도부 총사퇴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재보선 참패후 강창희·전여욱 최고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현 지도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됐다.

특히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격인 이재오 최고위원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빠르면 1일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그가 사퇴할 경우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캠프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 전 시장이 현 체제를 수용할 경우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도부 총사퇴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당 진로를 둘러싼 박·이 갈등은 첨예화 되면서 일대 총출동이 불가피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결국 결별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앞서 강 대표는 새신안에서 "후보의 당이 아닌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 중심체제 확립'을 선언하고 경선론 논의와 관련, "후보대리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특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당 대표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창동 당사에서 당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 새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중 대권 도전 선언" 한명숙 전 총리

범여권 잠룡으로 분류돼 온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5월 중으로 대권도전의 깃발을 들러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머지 않아 적절한 타이밍에 입장을 밝히려 하는데, 대체로 5월 안에 구도가 잡히지 않겠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그는 "대선 주자 중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두루 거쳐 경험했다는 게 장점점으로, 많은 부분을 계승하되 각 정부의 한계도 있었던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전여욱 "강 대표 퇴진이 쇄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30일 강재섭 대표의 당 새신안 발표와 사퇴거부 입장 표명에 대해 "강 대표의 안은 혁신책이 아니라 보신책에 불과하다"며 "강 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 옳다"고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홍 의원은 "강 대표와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보선 참패 직후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전여욱 의원은 "강 대표가 지금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쇄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후보들에게 거취를 묻는 것은 후보 눈치를 본다"는 자기 증명이 아니냐"며 "빨리 사퇴하고 당을 추스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왜 불출마 선언했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불출마 배경과 관련 "대선에 참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세력화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뒤 "저는 정치세력화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나름대로 범여권 대선 주자로 정치적 활동을 보였던 정 전 총장이 단순히 정치세력화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정치적 결단력·자금문제·낮은 지지율 주원인

정치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치적 승부 근성 부족'을 들고 있다. 정치적인 승부처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결국 고건 전 총리가 걸어간 길을 뒤따라갔다는 것이다.

고건 전 총리나 정운찬 전 총장이 각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적 승부 근성 결여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결단을 이루내지 못했고 이는 곧 낮은 지지율 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세 결집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세력화를 위한 자금 문제로도 낙마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 전 총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

사는 "정 전 총장이 기존의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면서 자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히, 전국 조직 구성을 모색하면서 기본적인 자금 문제로 상당한 심적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신을 범여권 통합을 위한 불소시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족들도 낮은 지지율을 근거로 대선 출마를 적극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5월 1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꽃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수강률 1위! 만족도 1위! 합격률 1위! - 새로운 도전 이젠 한빛이 경쟁력이다

79금 공무원전강좌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급 학원! 최강의 프로강사진! 누가 뭐래도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개강 ▶ 5월 1일 (주/야간반)

공무원합격의 1등 브랜드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34-0234

자매학원: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262-3553)